

2024년
고3
3월 학평

2024년 시행 고3 3월 학평 국어 문학 | 별을 보여 드립니다 분석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지문 분석

그(작품의 주인공 / ‘그’는 영국 유학에서 학위를 따지 못하고 귀국함.)(해당 작품의 시점에 대해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은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서술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는 돌아와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녀석에게는 학위를 가져오지 못한 한국적인 약점을 보충해 줄 지면*도 없었고, 지면을 만들 만한 주변머리도 없었다.(영국 유학에서 학위를 따지 못하고 돌아와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그’)(그의 처지를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유학 지망생 몇 명을 모아다가 회화를 가르치는 것으로 하숙비를 충당해 갔다. 녀석이 밤으로 그 노트를 한다는 것도 훨씬 뒤에야 알려진 일이었다. 시골에는 처음부터 내려가 볼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사이 ‘외롭다’는 말의 치사한 뉘앙스를 잊어버린 듯 주머니에 손을 구겨 넣고, 걸핏하면 외로운데 외로운데 소리를 함부로 내뱉으며 거리를 지쳐 쏘다니기도 한댔다.(주위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한 채 외롭게 살아가는 ‘그’ / 주변 사람들과 진정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는 ‘그’)

▶ 유학에서 학위를 따지 못하고 돌아와 외롭게 지내는 ‘그’

[그런 생활이 반년쯤 지나자 그에게는 두 가지 망측한 습벽(습관)이 붙어 있었다. 그 한 가지가 앞서 말한 도벽(그의 망측한 습벽 ①)이었다. 주위에 그의 도벽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드물었다. 그러나 아무도 그런 이야기를 맞대 놓고 말할 처지는 못 되었다. 녀석에게 도벽을 정면으로 인정하고 나서기란 그를 위해서보다 자신이 두려워지는 일이었다.

- 스스로 말해 올 때가 있겠지.

그러나 녀석의 태도는 시종 나 몰라라였다.(뻔뻔한 태도) 한 번도 자기 행투에 대해 변명 같은 것을 말한 적이 없었다.

녀석의 또 한 가지 나쁜 버릇은 다름 아닌 거짓말(그의 망측한 습벽 ②)이었다. 그는 아무렇게나 거짓말을 했다. 언젠가는 친구 한 사람이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을 해 있다고 급한 전화를 두루 걸어 준 일이 있었다. 우리는 병원으로 몰려갔지만 거짓말이었다. 녀석은 물론 근방에도 나타나지 않았고, 그 일에 대해서는 나중에 까지도 전혀 미안한 얼굴을 하지 않았다. 그런 일은 여러 번 있었다.(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한 ‘그’) 무슨 목적 같은 것을 가지고 한 거짓말이 아니었다. 말하자면 녀석은 아무렇게나 거짓말을 했다.(아무런 목적도 없이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일삼은 ‘그’) 문제는 녀석이 그렇게 되는대로 거짓말을 하면서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의식을 갖지 않고 있다는 점이었다. 거짓이 스스로 거짓임을 망각해 버릴 때, 그것은 이미 그의 내부 질서뿐 아니라 외부에 대해서도 무서운 파괴력을 지니게 될 것이 분명했다. 나는 그가 웬 거인의 그림자처럼 커다랗게 우리에게로 다가들고 있는 느낌이었다.(비유적인 표현을 활용해 ‘그’의 부정적인 모습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나’의 생각을 드러냄.) 그는 ‘거짓말’이라는 어휘도, 그 어의도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았다. 거품이 개울을 흘러내리듯(비유적인 표현을 활용해 그의 생활 방식을 드러냄.) 아무렇게나 생활을 흘러내려 가고 있었다.]([] : 유학에서 돌아와 절도와 거짓말을 아무렇게나 하는 습벽이 붙은 ‘그’)(그의 두 가지 습벽의 의미를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 두 가지 습벽이 붙은 ‘그’

그러던 녀석이 언제부턴가는 다시 진이를 향해 서서히 눈을 열기 시작(‘진이’에게 마음을 품게 된 ‘그’)함으로써 나를 더욱 당황스럽게 한 것이다. 그러나 나는 결국 그런 진이와의 일을 모른 체해 두기로 마음을 고쳐먹었다. [진이가 나타난 뒤로 우리는 막연하나마 녀석에게 한 가닥 희망을 가져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일에서나마 녀석의 생활에 어떤 변화의 가능성을 얻을 수 있을까 해서였다. 언젠가는 그가 진심으로 진이를 사랑한다 말하게 될 때가 올지도 모른다고. 물론 그때는 진이가 또 그로부터 떠나가고 말 것이지만, 그가 그렇게 말을 하는 순간 그의 의식은 그 지향 없는 흐름을 정지할 것이고, 그는 ‘거짓말’이라는 어휘를 기억해 낼 수도

있으리라는 희망이었다.]([: '진이'에게 마음을 품은 '그'에게 희망을 품게 된 '나') 녀석과 진이의 일을 모른 채 결에서 그냥 지켜보고만 있었다. 그러나 그는 기대와는 상관없이 언제까지나 흐르는 거품일 뿐이었다.(기대와 달리 계속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그') 하여 우리는 그럴 리가 없으리라는 애초의 확신('그'에 대한 '우리'의 희망)('나가 '확신'이라고 말한 이유에 대해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확신이라고 말한 것은, 만약 그것이 없었더라면 그쯤 된 녀석을 우리는 벌써 정상적인 사람으로 생각할 수 없었노라는 잔인스런 말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에도 불구하고, 그를 도대체 어떻게 여겨야 할지 모르고 있던 참이었다. 녀석에게는 우리의 희망이나 추측과는 전혀 다른 곳에서 또 이상한 일이 생겼다. 진이로서는 그 역시 녀석이 아직 흐르는 거품이라는 훌륭한 증거로 이해되었겠지만, 내게는 이상하게 더 가슴 아픈 일이었다.

그것이 바로 망원경 사건이었다.(새로운 사건이 제시됨.)

▶ '진이'를 마음에 품은 '그'에게 희망을 품게 됨.

[중략 부분 줄거리] 그는 돈을 받고 별을 보여 주는 청년에게서 빼앗듯이 망원경을 산 뒤, 혼자만 별을 보다('그'가 별을 보는 행위의 의미는 '진정한 인간관계'라는 진실을 추구하는 것임)('그'가 별을 바라보는 행위의 의미를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가 어느 날 망원경의 장례식을 치르기로 한다.

그는 물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별들이 노에 차여 비명을 지르며 흩어져 나갔다.

"영국 간다는 건 거짓말이야."(자신의 '거짓말'을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듯 보였던 '그'의 입에서 '거짓말'이라는 말이 나온다.)(내용 일치 문제에서 "그"는 끝까지 자신의 거짓말은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와 같은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는 계속 물을 내려다보면서 말했다. 나는 문득 팔에서 힘을 뺏고 노를 멈추어 버렸다. 신기한 일이었다. 녀석의 영국행이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나는 녀석의 입에서 거짓말이라는 단어가 소리로 되어 나오는 것을 처음으로 똑똑히 들은 것이었다.(그의 '거짓말'이라는 말에 놀란 '나') 더욱이 녀석의 목소리는 그 말에 대해 무척이나 많은 것을 생각하고 있었던 듯 낮고 조심스러웠다.

그렇다면 그의 내부에선 아직도 거짓말이라는 말의 어의가 부서져 허물어지지 않고 남아 있었던란 말인가. 그는 그런 나의 생각이 당연하다는 듯 말을 이었다.

"생각을 해 본 일은 있지만…… 두 번씩이나 쫓겨 가기는 싫었어. 거짓말을 한 것은 그런 식으로 나 자신의 배반을 맞보지 않고는 견뎌 배길 수가 없었던 때문이었지."('그'가 거짓말을 한 이유)('그'가 거짓말을 한 이유에 대해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물결이 가라앉은 강심을 더욱 깊이 내려다보았다. 내가 다시 노를 움직이자 그는 팔을 들어 나를 제지했다.

"가만있어. 여기가 좋겠어."

그는 어둠 속에서 나를 한번 건너다보고는, 그 눈길을 하늘로 큰 호를 그린 다음 다시 강물로 내려뜨렸다.

["이런 물건을 그 녀석들에게 다시 팔 수는 없었지. 어젯밤 무척 많이 생각했어. 하지만 오래 가지고 있으면 난 어느 때고 이놈을 팔게 되고 말 것 같았어. 멋있는 장례식을 생각했지. 아까 오후에 여기가 생각났어. 이렇게 잔잔히 별 그림자가 무늬진 강을 덮고 잠이 들면 이놈은 별의 꿈을 꾸겠지."]([: 망원경의 장례식을 치르 고자 하는 '그')

그는 기다란 것을 마치 어린애를 안듯 깊이 가슴에 품었다가 몸을 구부려 가만히 강물 아래로 밀어 넣었다.('그'가 망원경을 강물 아래로 밀어 넣는 것은 더 이상 별을 바라보지 않겠다는 의도임. 이를 통해 '진정한 인간관계'라는 진실을 더 이상 추구할 수 없는 비정하고 각박한 현실에 대한 작가의 비판적 인식을 확인할 수 있음.)('그'가 망원경의 장례식을 치르고자 하는 이유와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작가 의식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진정한 인간관계를 맺기 어려운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중심으로 다른 작품과 비교하는 수능형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고는 한동안 그 물 밑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 망원경의 제사를 지내는 '그'

- 이청준, 「별을 보여 드립니다」

* 지면: 만나서 알 만한 얼굴. 또는 그렇게 얼굴이 익은 사이

무한배포럼

핵심 정리

- 갈래: 현대소설, 단편 소설
- 성격: 비판적, 비유적
- 주제: 진정한 인간관계를 맺기 어려운 현실과 사회적 관습을 강요받는 현실로 인한 한 인물의 방황
- 특징
 -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서술됨.
 - 비유적인 표현을 활용하여 '그'의 삶의 모습을 드러냄.
 - 서술자가 한 인물의 행적을 요약하여 인물의 태도를 분석함.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1960년대를 배경으로, 유학에서 돌아온 '그'가 변모해 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작품이다. '나'의 시선을 통해 '그'의 모습을 드러내며 사회적 관습과 진정한 인간관계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는 '그'의 고뇌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특히 '별을 보'는 행위를 통해 진정한 인간관계를 맺고자 했던 그의 모습을 효과적으로 드러내며, 망원경의 장례를 통해 사회적 관습으로의 회귀를 선택하지만,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삶의 방향을 찾고자 하는 '그'의 모습을 보여 준다.